



## ▣ 기아자동차 ‘자율준수의지 재천명’ 통해 CP 실천 강화



지난 200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운영해오고 있는 기아자동차(대표 정성은)는, 올해 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재천명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CP를 조기에 도입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약 체결과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율준수 편람 배포 등의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기아자동차가, 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켜 나아가겠다는 것.

즉, 지난 7년간의 노력이 정도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면, 2009년은 변화된 의식과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핵심 경쟁력으로 확보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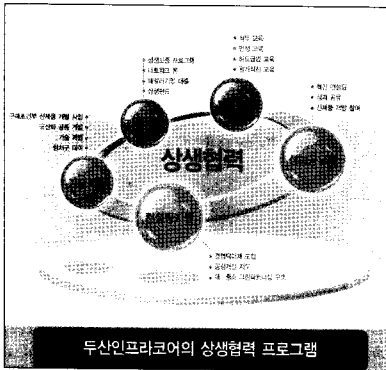
이를 위해 5월 12일 기아자동차의 CEO인 정성은 부회장은 자사 그룹웨어를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재천명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전임직원에게 ▲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조직을 재정비하고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 ▲ 공정거래법규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 업무추진에 있어서 공정거래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점검 및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감독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 등 세 가지 행동준칙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또한 “행동준칙에 의거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내부 감독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여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임직원 중 누구라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참여, 승인, 묵인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아자동차는 CEO의 자율준수의지 재천명에 따라 CEO의 메시지를 전 임직원들에게 적극 구체화 하는 실무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구성과 더불어 사내 인트라넷 ‘공정거래 자율준수 게시판’ 및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시작으로 자율준수 의지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는 것.

기아자동차의 자율준수관리자인 재경본부장 이재록 전무는 “올 한해는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풍토 조성 노력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은 고객, 협력업체,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경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역시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두산인프라코어 ‘성과공유제’ 통해 상생협력 구체화



두산인프라코어(사장 김용성)는 올해를 본격적인 상생경영의 원년으로 삼아 상생협력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담당 조직을 정비하는 등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ISB 글로벌 Top5 기업'으로 도약·성장해 나간다는 것. 지난해 11월 개최된 '두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체결 선포식'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협약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견기업들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 기업은행과 1,880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론' △ 300억 원 규모의 '패밀리 기업 대출' △ 산업은행 및 두산중공업과 공동 출자한 '상생펀드'를 통한 365억 원의 자금 지원 △ 정부와 대기업,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보증 프로그램'에도 2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총 3,2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과공유제' (Benefit Sharing)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성과공유제란 공급망에서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사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원가 절감, 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해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성과공유제를 통해 협력업체 특유의 강점과 뛰어난 노하우를 적극 발굴하고, 협력업체에 교육·원가·생산·품질·경영 전반과 관련된 혁신 컨설팅도 지원하며,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시행해오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구매물류 담당 김석구 상무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상생협력팀을 주축으로 내부감독체계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시행, 자율준수편람과 공정거래 용어사전 배포, 인터넷 구매시스템 등을 통한 홍보와 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CP에서 우수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과 창원 지역으로 나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강좌도 제공하고 있는데, 5월 중 협력업체 80여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회원사 소식



## ▣ 두산엔진, 협력사 품질정책지원으로 동반성장



회사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사 품질혁신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는 두산엔진(대표 이성희)의 협력사 품질정책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09 상생협력 전진대회'에서 두산엔진의 협력사들이 대거 수상하게 된 것.

이날 행사에서는 선박엔진용 연료고압관과 연료밸브 테스트기 등 고기술·고부가가치 선박엔진용 부품을

생산해 두산엔진에 공급하고 있는 우암기계가 단체부문 싱글PPM[제품 100만 개 중 불량품을 10개 미만(한 자리수)으로 줄이자는 품질혁신운동]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CJ테크도 싱글PPM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유공자부문에서도 협력사 관계 임직원들이 대거 수상함으로써, 두산엔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력사 품질정책을 통해 협력사와 모기업이 함께 커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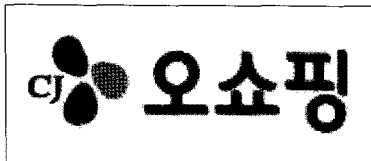
두산엔진은 엔진생산기술이 전문화·분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품질 경쟁력이 모기업의 제품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협력사와 탄탄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구축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왔다.

2007년에는 싱글PPM 우수 모기업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싱글PPM운동을 협력사에 확대·전파해 2008년 기준 국내 주요 협력사의 70%가 품질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협력사의 납품불량률이 2005년 2,234PPM에서 2006년에는 1,305PPM으로, 2007년에는 959PPM으로, 2008년에는 518PPM으로 하락해 매년 30% 이상의 품질불량률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산엔진의 품질경영임원인 김국현 상무는 "요즘과 같은 무한경쟁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경쟁력이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모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완벽한 품질 확보가 필수적으로, 앞으로도 협력사의 품질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 CJ오쇼핑, 신규 사명 및 비전 선포 간담회 개최



CJ오쇼핑의 이해선 대표는 5월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CJ오쇼핑의 사명 변경 배경 및 신규 CI,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밝혔다.

CJ오쇼핑은 2013년까지 국내 매출 2조5천억 원과 해외 매출 3조5천억 원 달성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상품과 방송 측면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트렌디한 쇼핑 채널로서 자리매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J오쇼핑은 수년 전부터 '홈쇼핑'이라는 업체명이 '집에서 쇼핑한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의미라는 점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새로운 프리미엄 유통 채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사명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의 '오(O)'는 '온라인(On-Line)', '온에어(On-air)'라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의 '옵티멈(Optimum)',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쇼핑할 수 있다는 의미의 '옵니프레젠티(Omnipresent)'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

## ▣ 포스코 기업집단 '2009년 제1회 Fair Trade Academy' 개최



포스코는 기업집단 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3월 26일 '2009년 제1회 Fair Trade Academy'를 포스텍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올해 들어 첫번째로 개최된 'Fair Trade Academy'에서는 포스코 기업집단소속 계열사 중 20개사(포스코건설, 포스데이타, 포스코파

워 등)에서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Fair Trade Academy에서는 포스코 기업집단 공정거래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장단점을 포스코에서 발표했으며, 삼성퍼먼에이 및 포스텍에서는 자체 점검하거나 상담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CP 등급 평가에 참여한 회사들이 운영 상의 노하우를 발표하는 등 참석자들 간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포스코는 기업집단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포스코 기업집단 Fair Trade Academy'를 분기당 1회씩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회원사 소식



## □ CJ그룹, 협력사 지원방안 발표



CJ그룹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J그룹은 3월 17일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및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 CJ GLS 민병규 대표 등 10개 계열사 대표와 80개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

앙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J그룹 상생협약 및 공정거래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CJ그룹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력사들을 위한 580억 원의 네트워크론"을 전면 도입하고, 현재 100% 이뤄지고 있는 그룹 하도급 거래 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전면 도입하는 한편, CJ제일제당은 협력사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기금 100억 원을 조성해 우수업체에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CJ그룹 손경식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힘을 합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국내 최고 기업은 물론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함께 도약, 발전하자"고 강조했다.

계열사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발표됐다.

주력 계열사인 CJ제일제당의 경우, 순수 현금결제 비율을 현재 28.25%에서 33.25%로 5%p 더 높이기로 해 연간 175억원 가량의 선(先)결제 효과가 기대된다.

CJ푸드빌은 협력사가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거래 대금의 선지금을 확대하는 한편, 협력사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상품화할 경우, 그 이익을 협력회사와 공유하기로 했다. 우수 협력사의 경우, 구입물량을 확대하고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도 새로 만들었다.

CJ GLS는 물류장비를 공동개발하고 특허를 공동 출원하는 등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수익은 해당 협력사와 똑같이 배분하기로 했다.

CJ건설은 1차 협력사의 부도에 따른 2차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도 대응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 풀무원홀딩스, 제25기 ‘열린 주주총회’ 개최



풀무원홀딩스가 ‘참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제 25기 ‘열린 주주총회’를 열었다.

3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복합문화공간 크링(Kring)에서 개최된 이번 열린 주주총회에서는 남승우 풀무원 대표이사, 유창하 재무담당 부사장과 300여 명의 주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 로하스 런치, 문화공연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순수 지주회사 (주)풀무원홀딩스가 출범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주회사에 대한 소개와 특징들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식 주주 외에도 주부, 파워블로거, 대학생 등의 풀무원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들이 ‘명예 주주’로 참여해 열린 주총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25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 등이었으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주총 끝난 후 점심식사로 풀무원측이 제공한 비빔밥과 함께 아카펠라 공연팀 ‘원더풀’이 무대에 등장해 ‘스탠바이미’(Stand by me) 등 유명곡을 선보이며 열린 주총을 마무리 지었다.

## □ 경쟁법센터, 한국경쟁법학회와 국제심포지움 공동 개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권오승)는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Some Enforcement Issues of Chinese Antimonopoly Law”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기업, 정부부처, 대학, 법무법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국 Xin Yu Xu 부처장이 ‘Status and Outlook of NDRC’s Implementation of Chinese Anti-Monopoly Law’를, 중국 화

동정법대 Shiyong Xu 교수가 ‘Abuse of Market Dominance’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난징대 Xiaomin Fang 교수의 ‘Merger Control’ 발표에 이어 중국사회과학원 Xiaoye Wang 교수가 ‘Explanation and Comment on the Coca Cola & Huiyuan Merger Case’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패널로 한국과 일본의 경쟁법 전문가 8명이 토론에 참가해, 최근 외국기업의 중국내 토종기업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했다.